

사랑스런 추억

윤동주

봄이 오던 아침, 서울 어느 조그만 정거장에서 희망과 사랑처럼 기차를 기다려,

나는 플랫폼에 간신히 그림자를 떨어트리고, 담배를 피웠다.
내 그림자는 담배 연기 그림자를 날리고
비둘기 한 마리가 부끄러울 것도 없이
나래 속을 속, 속 햇빛에 비취, 날았다.
기차는 아무 새로운 소식도 없이
나를 멀리 실어다주어,

봄은 다 가고-동경 교외 어느 조용한 하숙방에서, 옛 거리에 남은 나를 희망과 사랑처럼 그리워한다.

오늘도 기차는 몇 번이나 무의미하게 지나가고,

오늘도 나는 누구를 기다려 정거장 가차운 언덕에서 성거릴 게다.

-아아 젊음은 오래 거기 남아있거라.